

중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금경희, 조영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Geum, Kyung-Hee, Cho, Young-A*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ngji University

요약 최근 들어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 시기부터 진로준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환경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환경적, 심리내적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학습관여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희망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강원도 W시의 중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모의 학습관여, 진로준비행동, 희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모의 학습관여의 학업정보제공/조언, 학습방법존중은 희망 및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성과 압력은 진로준비행동, 희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희망은 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인 학업정보제공/조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방법존중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은 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성과 압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학업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학업정보제공/조언과 학습방법존중을 통해 희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Recently, the need for research into environmental and intrapsychic variables to promote a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ing need to cultiv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arting from middle school. On the basis of this n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e surveyed 320 middle school students in W city, Gangwon-do, regarding these variables. We evaluated the results according to Baron and Kenny's (1986) mediating effect test procedure. The finding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such as respecting their children's learning methods and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and advice, and th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hope. However, the findings didn't show an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such as pressure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and hope. Furthermore, hope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ositive learning involvement, including academic information and advi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hile fully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respecting the students' learning methods. However, it did not have an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sure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t role that instilling hope in students, through respecting their learning methods and advising and providing the necessary academic information, plays in achieving a higher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pe,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Corresponding Author : Cho, Young-A(Sangji University)

Tel: +82-33-738-7848 email: life7777@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0, 2016

Revised October 31,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1. 서론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는 진로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흥미와 특성, 능력 등 자신에 대한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직업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직업관련 경험을 가져보는 직업준비행동도 요구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1]. 특히 중학교 시기는 진로와 관련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선택에 앞서 자신의 특성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대안들을 활발히 탐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진로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자신에 대한 탐색기회나 다양한 직업관련 경험이 제공되기보다는 입시나 학업성적위주의 진학준비로 인해 도리어 학업이 중단되거나 학습의욕이 저하되어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3],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상대적인 관심부족으로 진로 선택 시 혼란을 겪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가치관, 적성, 흥미 등과 같은 개인내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개인외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외적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4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진로에 대한 영향을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청소년기 이후 까지도 부모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부모의 조언이나 기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의 가족문화를 고려하면[6], 한국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적극적인 학습관여를 통해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지나칠 정도로 교육적 열의가 높고,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해 한국에서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7],[8].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학습성과압력나 학습방법준중, 학업정보제공 같은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9]. 언어적 칭찬이나 격려는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키지만[10],[11], 학습 성취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낮추고[12],[13],[14] 진로정체감을

낮아지게 하며[15] 진로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15],[16],[17],[18],[19]. 그러나 이러한 몇몇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부모관련변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진로준비행동은 주로 양육태도나 진로지지행동과 관련해서만 연구되어졌을 뿐 학습관여 형태나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모의 긍정적, 부정적 학습관여 방식이 장기적인 생애개발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모의 학습관여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써 장기적으로 모의 일관된 학습관여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모의 학습관여와 함께 자발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내적인 매개변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내적 변인으로는 희망(Hope)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적과 적성(78.3%), 직업선택(32.7%)을 청소년 시기의 가장 큰 고민으로 꼽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습과 진로준비에 있어서 절망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기 쉽다[20]. 또한 모의 적절한 학습관여는 학업과 진로와 관련하여 목표를 다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적절한 관여는 자녀에게 도리어 부담으로 작용하여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희망은 진로준비행동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생들에게 모의 학습관여와 함께 진로에 대한 절망감이나 불안을 낮추고 적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21].

한편,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는 정도는 모의 양육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22], 수용적 양육방식[23]은 자녀의 희망적 사고를 촉진하는 반면 거부적인 양육방식은 희망을 감소시킨다. 학습방법준중이나 학습성과압력 같은 모의 학습관여 방식은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의 일환이며, 양육방식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긍정적, 부정적 학습관여가 희망감의 증진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모의 학습관여 및 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의 학습관여형태와 수준은 진로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로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진로준

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모의 학습관여나 희망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 이 세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즉, 모의 학습관여와 희망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희망이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중학교 시기는 본격적인 진로선택 이전에 자신의 특성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대안들을 탐색하는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과 함께 자신의 결정된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행동으로 진로정보 탐색행동과 진로개발 준비행동으로 구분된다. 진로정보 탐색행동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심리검사나 진로관련 검사를 받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선배들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진로개발 준비행동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진로 방향에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행동으로,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이나 진로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는 활동을 하거나 설정된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실제적인 시간과 여력을 투자하는 것이다[3].

부모는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개인외적 요인이다[5]. 특히 한국사회에서 전형적인 어머니의 특성으로 부각되는 높은 교육열이 자녀 학습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고려해본다면 모의 학습관여는 장기적인 생애개발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로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24]. 부모의 학습관여란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성취의욕을 북돋아주거나 자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9]. 부모의 학습관여는 긍정적인 관여와 부정적인 관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첫째, 자녀가 학업에 대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도와주며,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찾아주는 행동이

다. 둘째, 자녀가 공부하고 싶은 장소와 시간, 자세, 방법과 자녀가 하고 싶은 공부를 지지해주는 행동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학습관여는 성취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자녀의 능력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며,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하고, 성적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화를 내는 행동을 말한다[10].

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10],[11]. 김수리[10]와 이옥경[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되어 언어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학습방법을 존중하고 학습에 대한 조언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와 양육적이고 수용적인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5],[26],[27],[28],[29],[30]. 즉, 모가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과거의 수행성취의 경험을 제공하고 조언하게 되면 자녀의 기능적인 진로사고가 촉진되어 진로준비 과정이 순조로워진다. 또한 모가 언어적 격려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해주면 진로 탐색이나, 정보수집, 직업체험 활동 등의 진로준비행동이 증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31]. 그러나 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감으로 학습성과압력을 행사하면 자녀는 진로에 부담을 느껴 진로성숙도가 낮아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낮아지며, 자녀가 직업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직업의 자궁심을 길러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32],[33],[34]. 여러 연구들에서 모의 기대나 압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고, 진로결정시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되어 진로결정을 어려워하고 진로정체감이 낮아진다고 보고된다[35],[36]. 또한 진로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진로결정 장애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된다[37],[38],[39]. 따라서 모의 과도한 학습성과압력은 학업정보제공이나 학습방법존중과는 달리 진로관련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모의 학습관여와 함께 자발적으로 중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내적인 매개변인으로 희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희망이란 인간이 가고자하고 바라는 목표를 향하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이러한 통로를 활용하도록 동기화되는 것을 말한다[40]. Snyder는 희망을 통로 사고(Pathway Thinking)와 주도적 사고(Agency Thinking)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긴 긍정적인 동기 상태로 정의하였다[40]. 통로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을 말하며, 주도적 사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희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희망은 진로계획, 진로결정성, 진로효능감과 같은 진로관련 태도나 지각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41].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희망은 더 높은 진로확실성[4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업정체감[43], 목표선택과 자기효능감[44], 진로계획[45]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희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희망의 증가는 진로준비행동의 증가와 일관되게 관련이 있었다[46],[47],[48]. 또한 희망은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서 희망이 외적 환경적 요인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내적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49],[50].

한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부모의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방식,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환경은 자녀의 희망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51], 수용적 양육방식[52]은 자녀의 희망적 사고를 촉진하였으며,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희망이 증가하였다[53]. 따라서 학습에 대한 부모의 조언이나 학습방법 존중도 일련의 수용적인 양육방식으로 작용하여 희망을 증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부모의 학습성과 압력은 자녀들로 하여금 시험불안이나 완벽주의 같은 부정적인 심리내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고[54], [55], 정신건강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56] 희망과 유사한 개념인 학습적 자기효능감이나 숙달목표나 수행목표와 같은 내재적 동기와는 관련이 없는[57]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학습성과 압력과 같은 부정적 학습관여는 희망감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중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모의 학습관여와 희망은 서로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지지와 희망,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몇몇 연구들에서[47],[58] 희망이 부

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희망이 부모의 태도나 행동적 요소와 함께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부모관련 변인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고려해봐야 할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역할은 주로 양육태도나 진로지지행동과 관련해서만 연구되어졌을 뿐 학습관여 형태나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 또한 모의 학습관여형태와 수준이 진로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로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모의 학습관여행동과 희망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희망이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희망이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 설문은 강원도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은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루어졌고, 각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시작 전에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연구 목적과 실시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320부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0부에 대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121명(40.3%) 여학생 179명(59.7%) 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03명(34.3%), 2학년 109명(36.3), 3학년 88명(29.3%)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모의 학습관여

모의 학습관여 척도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한 네 가지 행동요인과 학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포함하는 Deci(1995)[59]의 개념에 따라 임은미(1988)[60]가 개발한 것을 김연수(2007)가 3개요인 20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정보제공/조언(9문

항), 자녀학습방식준중(4문항) 학습성과압력(7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긍정적 학습관여는 하위요인 중 학업정보제공/조언과 자녀학습방식준중이고, 부정적 학습관여는 학습성과압력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관여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학업정보제공/조언은 .88, 자녀 학습방식준중은 .81, 학습성과압력은 .92로 나타났다.

3.2.2 희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Snyder등(1991)[61]의 특성희망 척도와 Snyder와 Symson(1997)[62]의 상태희망 척도를 종합하여 빈안한 것을 김택호(2004)[63]가 수정, 보완하여 1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경로사고(7문항)와 주도사고(7문항)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자신의 희망수준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3, 경로사고 .88, 주도사고 .89로 나타났다.

3.2.3 진로준비행동 척도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을 최인재등[64]이 중학생에게 맞게 재구성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진로탐색(6문항)과 진로개발(4문항)로, 전체문항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진로준비행동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84, 진로탐색 .76 진로개발 .74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를 통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65]의 매개효과 3단계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의 학습관여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유효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3.4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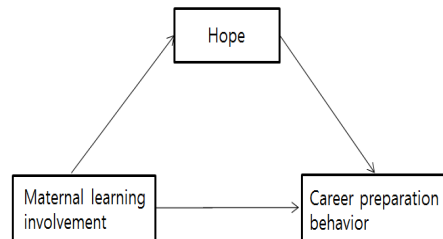


Fig. 1. Study Model

3.5 연구문제

- 첫째, 모의 학습관여와 희망,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희망은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3.6 연구가설

- 가설 1. 모의 학습관여는 희망 및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희망은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연구결과

4.1 변인들 간의 상관

본 연구에서는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첫째, 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정보제공/조언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진로탐색행동($r=.36$) 및 진로개발행동($r=.32$) 모두와 유의한 정적상관 보였다($p<.01$). 학습방법준중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진로탐색행동($r=.2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p<.01$) 진로개발행동($r=.11$)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성과압력과 진로준비행동($r=-.02$)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모의 학

습관여 중 학업정보제공/조언과 희망($r=.44$)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고($p<.01$), 학습방법준중과 희망($r=.35$)도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p<.01$). 하지만 학습성과압력과 희망($r=-.03$)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은 진로탐색행동($r=.47$) 및 진로개발행동($r=.55$)과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다음으로 통제변인 중에서 학년은 학업성취압력($r=.12$)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p<.05$), 진로개발행동($r=-.14$)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p<.05$) 나타내었고, 모의 학력은 학업정보제공/조언과 ($r=.15$) 유의한 정적상관을($p<.05$), 경제적 수준은 학업정보제공/조언($r=.15$), 학습방법준중($r=.13$), 희망($r=.21$), 및 진로준비행동($r=.14$)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Table 1.

4.2 모의 학업정보제공/조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모의 학습관여의 하위요인인 학업정보제공/조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표2에 제시하였다.

Baron과 Kenny[65]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3단계를 거쳐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의 학업정보제공/조언이 매개변수인 희망에 미치는 영향력($\beta=.4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의 학업정보제공/조언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eta=.37, p<.001$)도 유의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모의 학업정보제공/조언과 매개변인인 희망을 동시에 투입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매개변수인 희망은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beta=.47, p<.001$). 또한 모의 학업정보제공/조언의 영향력이 2단계 $\beta=.37$ 에서 3단계 $\beta=.17$ 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Baron과 Kenny[65]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모두 만족하였으며 희망은 모의 학업정보제공/조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희망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5.93 p<.001$). Table 2.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N=3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Control Variables	1. Gender	1												
	2. Grade	-.13*	1											
	3. Mother's level of education	-.04	-.01	1										
	4. Economic level	.13*	.04	.09	1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5.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advice	-.01	.07	.15*	.15**	1								
	6. Respect for learning method	.04	-.03	-.06	.13*	.35**	1							
	7. Pressure for academic performance	-.02	.12*	-.04	.01	-.03	.77**	1						
Hope	8. Pathway thinking	.05	-.11	-.05	.20**	.40**	.34**	-.04	1					
	9. Agency thinking	.01	-.07	-.01	.20**	.44**	.33**	-.02	.80**	1				
	10. Hope	.03	-.10	-.03	.21**	.44**	.35**	-.03	.94**	.95**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1. Career exploration	.06	-.05	-.01	.14*	.36**	.21**	-.01	.43**	.46**	.47**	1		
	12. Career development	.08	-.14*	.03	.12	.32**	.11	-.03	.49**	.55**	.55**	.64**	1	
	1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71	.09	.01	.14*	.38**	.19**	-.02	.50**	.55**	.56**	.94**	.87**	1
	M	1.60	.49	3.07	1.85	20.25	18.88	28.76	31.59	25.38	56.97	20.81	14.72	35.53
	SD	1.95	.80	1.07	.42	4.95	3.90	8.15	4.85	5.06	9.38	4.51	4.51	7.00

Table 2. Mediating effect of hope in relationship between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advi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hase	Control/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Gender	Hope	.85	.99	.045	.86	.23	18.07***
	Grade		-.80	.61	-.07	-1.32		
	Mother's level of education		-.90	.45	-.10	-1.99*		
	Economic level		3.35	1.16	.16	3.06**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advice		.82	.10	.43	8.25***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Gend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13	.77	.08	1.46	.16	11.68***
	Grade		-.56	.47	-.06	-1.18		
	Mother's level of education		-.35	.35	-.05	-1.00		
	Economic level		1.73	.90	.11	1.92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advice		.52	.08	.37	6.74***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Gend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83	.69	.06	1.20	.34	27.57***
	Grade		-.28	.43	-.03	-.66		
	Mother's level of education		-.04	.32	-.01	-.12		
	Economic level		.49	.82	.03	.60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advice Career		.23	.08	.17	3.06**		
	Hope		.35	.04	.47	8.63***		

p<.01, *p<.001

4.3 모의 학습방법존중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모의 학습방법존중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의 학습방법존중이 매개변수인 희망에 미치는 영향력($\beta=.3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의 학습방법존중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eta=.16, p<.001$)도 유의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의 학습방법존중과 매개변수인 희망을 동시에 투입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희망은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beta=.54, p<.001$). 또한 모의 학습방법존중 영향력이 2단계 $\beta=.16$ 에서 3단계 $\beta=.02$ 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Baron과 Kenny[65]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모두 만족하였으며, 희망은 모의 학습방법존중과 진로준비행동사이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희망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5.22, p<.001$). Table 3.

4.4 모의 학습성과압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모의 학습성과압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하는 독립변수인 모의 학습성과압력이 매개변수인 희망에 미치는 영향력($\beta=-.0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도 독립변수인 모의 학습성과압력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beta=-.01$)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모의 학습성과압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75]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희망은 모의 학습성과압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3. Mediating Effect of Hope in Relationship Between Respect for Learning Method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hase	Control/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Gender	Hope	.53	1.04	.03	.51	.16	11.32***
	Grade		-1.04	.63	-.09	-1.64		
	Mother's level of education		-.26	.47	-.03	-2.01		
	Economic level		3.85	1.21	1.7	3.18**		
	Respect for learning method		.78	.13	.33	6.02***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Gend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02	.82	.07	1.25	.06	3.91**
	Grade		-.75	.50	-.09	-1.49		
	Mother's level of education		.03	.37	.01	.09		
	Economic level		2.21	.96	.13	2.31		
	Respect for learning method		.29	.10	.16	2.84**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Gend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80	.70	.06	1.14	.31	22.32***
	Grade		-.32	.43	-.04	-.74		
	Mother's level of education		.12	.32	.02	.38		
	Economic level		.64	.83	.04	.77		
	Respect for learning method		-.03	.09	-.02	-.31		
	Hope		.41	.04	.54	10.36***		

p<.01,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Hope in Relationship between Pressure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hase	Control/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Gender	Hope	.89	1.10	.05	.81	.06	3.66**
	Grade		-1.14	.68	-.10	-1.68		
	Mother's level of education		-.41	.50	-.05	-.83		
	Economic level		-.49	1.27	-.22	-3.88		
	Pressure for academic performance		-.03	.07	-.02	-.38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Gend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15	.83	.08	1.39	.04	2.43*
	Grade		-.79	.51	-.09	-1.54		
	Mother's level of education		-.04	.38	-.01	-.11		
	Economic level		-2.61	.96	-.16	-2.72		
	Pressure for academic performance		-.01	.05	-.01	-.11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Gend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79	.70	.06	1.13	.31	22.30***
	Grade		-.33	.43	-.04	-.75		
	Mother's level of education		.13	.32	-.02	.40		
	Economic level		-.62	.83	-.04	-.74		
	Pressure for academic performance		.01	.04	.01	.11		
	Hope		1	.04	.54	10.87		

p<.01, *p<.001

5. 논의

본 연구는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희망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 3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모의 학습관여의 긍정적인 하위요인인 학업정보제공/조언과 학습방법존중은 진로준비행동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성과압력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가 자녀에게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의 학습방식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학업정보를 제공하고 학습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등 긍정적으로 관여할수록 자녀는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낸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10],[11],[24],[47],[66],[67]. 또한 지지적 부모행동이 청소년의 정보 탐색 활동을 촉진한다고 주장한 Kracke[68]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학습방법을 존중하는 것은 진로준비행동 중에서도 진로탐색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학습방법을 존중받으면 학습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진로탐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호함이나 불안감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학습성과압력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모가 학업에 대해 성과압력을 가하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모의 성과압력이 클수록 진로성향이 낮아지거나[10], 진로성숙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69]. 또한 부모의 학습성과압력이 자녀가 직업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직업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최보윤과 공윤정[70]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모가 자녀의 능력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며 성적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화를 내는 행동을 통해 자녀의 자신감과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자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 준비행동을 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희망감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

는 것으로 희망이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가 중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46],[47],[50],[71].

둘째, 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인 학업정보제공/조언과 학습방법존중은 희망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성과압력은 희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학업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방법을 존중하는 것이 희망을 촉진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모의 진로관련 지지가 희망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72],[73],[74],[75]. 이는 부모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언어적 격려가 자녀에게 든든한 지지와 안정감을 주어[76],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며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감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습성과압력은 희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학습성과압력이 부적절한 완벽주의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특성이거나[54],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거나, 주도적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유지시켜나가는 태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5],[56].

셋째, 희망은 모의 학습관여의 긍정적인 하위요인인 학업정보제공/조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모의 학습방법존중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정보제공/조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희망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은 모의 학업정보제공/조언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중학생 자녀의 희망감을 증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희망이 학습방법존중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것은 중학생자녀의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원인이 학습과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받는 존중으로 부터 생기는 희망감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모지지와 희망이 진로준비행동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 [47],[57]와 유사한 맥락으로 중학생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습관여의 목적과 방향이 자녀의 희망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부모가 학습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고 진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주면 자녀들은 자신감과 진로효능감이 높아져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도전정신과 같은 희망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75]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학업에 치중하게 되어 직업탐색이나 진로적성을 탐색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8]. 그러나 희망감은 진로준비과정에서 진로장벽에 부딪힐 때에도 다른 대안이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자신감 있게 목표를 추구하게 하며[72] 진로준비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방법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서 희망이 촉진하는 주도적 동기(proactive motivation)가 증가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진로준비에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75].

한편 모의 학업정보제공/조언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가 학습관여를 통해 중학생 자녀의 진로탐색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제공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희망은 모의 학습성과압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학습성과압력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불안감으로 인해 희망감이나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적인 학업충고나 학업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은 모의 학습성과압력은 자녀의 진로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 부모학습관여 뿐만 아니라 희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습관여 방식에 따라 중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서 학습관여의 수준 뿐만 아니라 학습관여 방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학습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나 충고를 주거나 자녀의 학습방법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희망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기적인 학습목표를 단계별로 하위목표로 나누어서 성취하게 하면 하위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인해 자신감이 증진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성취감이 희망을 북돋을 것이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76],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과 긍정적 귀인을 하는 인지적 훈련을 통해서도 희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식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상담이나 교육과정에서 촉진하고, 자신의 강점이나 성취경험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희망의 주요 요소인 긍정적 기대와 긍정정서를 극대화하여 희망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표집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영향력만을 알아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중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 뿐 만 아니라 친구, 교사등과 같은 다른 외적변인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기제로써 심리내적인 변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기제가 존재하지만 희망만을 알아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같은 다른 긍정적인 내적변인을 찾아 그 효과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Super. D. E.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8, no. 5, pp. 185-190, 1953. DOI: <http://dx.doi.org/10.1037/h0056046>
- [2] Sharf R. S.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5th Edn Belmont, CA: Brooks/Cole Cengage Learning, 2010.
- [3] S. B. Kim., H. J. Bang. "Major issues of school career education and policy direction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3(9). pp. 97-114. 2010.
- [4] B. H.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11-333, 1997.
- [5] H. Y. Sun., G. H. Kim. "The difference of the parents' involvement style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parents and children in Adolescent Career Decision Mak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9, no. 2, pp. 161-179,

2008.
DOI: <http://dx.doi.org/10.15753/aje.2008.9.2.008>
- [6] W. D. Gang., G. Y. L. Ah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Ident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0, no. 4, 739- 764, 2015.
- [7] S. Y. Kim. "The effect of high school type and career decision-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2.
- [8] H. S. So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3, pp. 1325-1350, 2010.
DOI: <http://dx.doi.org/10.15703/kjc.11.3.201009.1325>
- [9] C. H. Pak.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bonding relation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2.
- [10] S. R. Kim.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PhD Thesis. Hongik University, 2005.
- [11] O. K.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2.
- [12] H. E. An., Y. H. Kim. "The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Korea Society of Psychology*, vol. 26, no. 3, pp. 657-682, 2008.
- [13] Y. H. Kim. "The Influence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Teenager'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2010.
- [14] G. H. Lee. "Relationship of the Parent's Accomplishment Pressure and Career Guidance on Children's Career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15] Y. J. Se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the attitude for sex roles, career identity and choosing intensive courses of students in senior high school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05.
- [16] Dietrich, J., Kracke, B.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5, no. 2, pp. 109-119, 2009.
DOI: <http://dx.doi.org/10.1016/j.jvb.2009.03.005>
- [17] H. J. Lee. "The relationship of parent career-related behavior, parental attachment, and undergraduates'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1, pp. 41-59, 2010.
- [18] A. L. Cho.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Parent career-related behavior",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3.
- [19] Larson, J. H., Wilson, S. M.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young adult career decision problems: A test of Bowenian theor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26, no. 1, pp. 39-53, 1998.
DOI: <http://dx.doi.org/10.1080/01926189808251085>
- [20] Statistics. South Korea trend of 2013. 120, 2013.
- [21] M. J. Kim., H. I. Cho.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and adjustment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9, no. 2, pp. 331-360, 2015.
DOI: <http://dx.doi.org/10.17286/KJEP.2015.29.2.08>
- [22] H. R. Mun., D. H. Lee. "Relationship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and Female Teachers' Discipline Styles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ir Empathy and Hop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25, no. 2, pp. 113-132, 2015.
- [23] Kumar, A., Sharma, M., Hooda, D. "Perceived parenting style as a predictor of hop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vol. 38, no. 1, pp. 174-178, 2012.
- [24] C. H. Yoon., T. H. Ahn. "The Effects of Motives for School Choice, Career Belief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8, pp. 131-157, 2015.
- [25] Vignoli, E., Croity-Belz, S., Chapeland, V., de Fillipis, A., & Garcia, M.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The role of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7, no. 2, pp. 153-168, 2005.
DOI: <http://dx.doi.org/10.1016/j.jvb.2004.08.006>
- [26] Tracey, T. J., Lent, R. W., Brown, S. D., Soresi, S., Nota, L. "Adherence to RIASEC structure in relation to career exploration and parenting style: Longitudinal and idiographic consider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9, no. 2, pp. 248-261, 2006.
DOI: <http://dx.doi.org/10.1016/j.jvb.2006.02.001>
- [27] C. H. Pak.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bonding relation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2.
- [28] E. J. Cho., H. Y.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of Parenting Behavior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Perceived High School Student : Hope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Association of Sand Play Therapy*, vol. 15, no. 4, pp. 515-533, 2012.
- [29] S. H. Huh. "A Study on the Social Compet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 Parenting Attitudes in their Early Childhood",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vol. 4, no. 3, pp. 129-147, 2006.
- [30] W. D. Kang., G. Y. R. Ahn.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0, no. 4, pp. 739-764, 2015.
DOI: <http://dx.doi.org/10.17315/kjhp.2015.20.4.003>
- [31] W. D. Kang., G. Y. R. Ahn.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0, no. 4, pp. 739-764, 2015.
DOI: <http://dx.doi.org/10.17315/kjhp.2015.20.4.003>
- [32] Y. H. Kim. "The Influence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Teenager'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2010.
- [33] H. E. An., Y. H. Kim. "The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Korea Society of Psychology, vol. 26, no. 3, pp. 657-682, 2008.
- [34] G. H. Lee. "Relationship of the Parent's Accomplishment Pressure and Career Guidance on Children's Career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35] Larson, J. H., Wilson, S. M.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young adult career decision problems: A test of Bowenian theor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26, no. 1, pp. 39-53, 1998.
DOI: <http://dx.doi.org/10.1080/01926189808251085>
- [36] Dietrich, J., Kracke, B.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5, no. 2, pp. 109-119, 2009.
DOI: <http://dx.doi.org/10.1016/j.jvb.2009.03.005>
- [37] Y. J. Se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the attitude for sex roles, career identity and choosing intensive courses of students in senior high school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05.
- [38] H. J. Lee. "The relationship of parent career-related behavior, parental attachment, and undergraduates'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1, pp. 41-59, 2010.
- [39] A. L. Cho.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Parent career-related behavior",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3.
- [40]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Harney, P.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no. 4, pp. 570-585,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0.4.570>
- [41] Hirschi, A. "Hope as a resource for 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Investigating mediating effects on proactive career behaviors and lif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5, no. 6, pp. 1495-1512, 2014.
DOI: <http://dx.doi.org/10.1007/s10902-013-9488-x>
- [42] Hurley, J.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hope on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in a sample of undergraduate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vol. 65, no. 2, pp. 145-153, 2004.
- [43] Juntunen, C. L., & Wettersten, K. B. "Work hop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3, no. 1, pp. 94-106,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53.1.94>
- [44] Betz, N. E., Hammond, M. S., Multon, K. 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ive-level response continua for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3, no. 2, pp. 131-149, 2005.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04273123>
- [45] Kenny, M. E., Walsh-Blair, L. Y., Blustein, D. L., Bempechat, J., Seltzer, J.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urban adolescents: Work hope, autonomy support, and achievement-related belief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7, no. 2, pp. 205-212, 2010.
DOI: <http://dx.doi.org/10.1016/j.jvb.2010.02.005>
- [46] M. O. Kim. "Coping strategy on career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mediator effect of the hope in the relationship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3.
- [47] H. K. An. "The Influences of Hope,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08.
- [48] S. H., Lee. "The Influence of Hope and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 [49] G. Y. Lee.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1.
- [50] A. R. Cha., H. K. Le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1, pp. 343-358, 2014.
DOI: <http://dx.doi.org/10.15703/kjc.15.1.201402.343>
- [51] H. R. Mun., D. H. Lee. "Relationship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and Female Teachers' Discipline Styles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ir Empathy and Hop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25, no. 2, pp. 113-132, 2015.
- [52] Kumar, A., Sharma, M., Hooda, D. "Perceived parenting style as a predictor of hop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vol. 38, no. 1, pp. 174-178, 2012.
- [53] K. S. Oh.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and Hopeful Thinking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5.
- [54] J. E. Oh., S. Y. Chu., S. M.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Test Anxiety : An Exploration of Intervening Variabl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4, 209~237, 2009.
- [55] J. H. Jung., H. H. Jung., G. S. Lee. "Effects of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est Anxiety", The Korea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3, pp. 377-393, 2009.
- [56] S. J. Hong., I. S. Oh. "The Effect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Parental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on Gifted Students' Mental

- Health Problem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7, no. 1, pp. 73-94, 2016.
- [57] S. Y. Lee. "The Relationships of parents' involvement with children and pressure on children's academic activities to their academic motivation",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2010.
- [58] H. J. Yang., G. J. Ye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related Father's/Mother's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3, no. 1, pp. 199-227, 2015.
- [59] Deci, E. L. "Intrinsic motivation", NY: Plenum Press. 1995.
- [60] E. M. Lim.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motivation, parental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Phd Thesis. Seoul University, 1998.
- [61]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et al.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pp. 570-585,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0.4.570>
- [62] Snyder, C. R., Cheavens, J., Sympson, S. C. "Hope: An individual motive for social commerc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vol. 1, no. 2, pp. 107-118, 1997.
DOI: <http://dx.doi.org/10.1037/1089-2699.1.2.107>
- [63] T. H. Kim.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Phd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4.
- [64] I. J. Choi., B. H. Kim., M. H. Hwang., E. Y. Huh. "Korean youth indicator survey IV: youth career. job indicator",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9.
- [65] Baron, R. M., Kenny, D. A.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66] J. H. Geu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0, no. 7, pp. 59-66, 2012.
- [67] Y. R. Chi,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0.
- [68] Kracke, B.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5, pp. 19-30, 2002.
DOI: <http://dx.doi.org/10.1006/jado.2001.0446>
- [69] W. S. Park. "The Longitudinal Study of Factors effect on Career Maturity for Secondar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0, no. 4, pp. 87-101, 2007.
- [70] B. Y. Choi., Y. J. Gong. "The Influence of parent's accomplishment pressure and career guidance on children's career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8, no. 1, pp. 67-78, 2009.
- [71] S. 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hD Thesis. Hongik University, 2005.
- [72] Snyder, C. R.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Simon and Schuster, 1994.
- [73] K. O. Kim., B. H. Jo. "The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ope of Stroke Survivor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4, no. 1, pp. 58-72, 2001.
- [74] H. J. Jang., J. H. Lim, "Hope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22, no. 1, pp. 67-78, 2010.
- [75] H. I. Cho, "The Mediation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2, no. 3, pp. 65-87, 2009.
- [76] Lopez, S. J., Bouwkamp, J., Edwards, L. M., Teramoto Pedioti, J. "Making hope happen via brief interventions", second positive psychology summit, Washington, DC, 2000.

조 영 아(Cho, Young-A)

[정회원]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대학원 졸업(문학석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대학원 졸업(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다문화상담, 긍정심리학

금 경 희(Geum, Kyung-Hee)

[정회원]



- 2012년 8월 :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문학석사)
- 2015년 8월 : 상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박사수료)

<관심분야>

부모양육태도, 긍정심리학